

보도일시

배포 이후 즉시

배포

2026. 7. 16.(목)

동해해수청, 우수 해수욕장 선정 위한 현장평가

- 강원지역 해수욕장 후보지 6개소 대상으로 시설관리·운영 중심 1차 평가 진행

동해지방해양수산청(청장 박정인)은 지방정부가 추천한 강원권 우수 해수욕장 6개소를 대상으로 7.20(월)부터 7.30(목)까지 2주간 현장평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.

평가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강릉시 경포해수욕장, 동해시 망상해수욕장, 속초시 청호해수욕장, 삼척시 삼척해수욕장, 고성군 송지호해수욕장, 양양군 낙산해수욕장이다.

이번 평가는 1차 현장평가 기준*에 따라 해수욕장의 시설관리상태와 운영현황을 중심으로 현장평가 한 후, 이용객 만족도 설문조사 점수를 합산하여 강원권 해수욕장 3개소를 1차 선정하게 된다.

* 환경·안전·물가관리, 편의시설, 운영체계(불편신고센터 유무 등), 특화 선도모델 운영(관광프로그램 유무 등), 홍보 등 7개 분야

최종 우수 해수욕장 선정은 해양수산부 해수욕장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26년 11월에 전국에서 3개소가 선정되며, 장관상 및 포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. 참고로, 최근 우수 해수욕장으로는 2024년 경포해수욕장과 삼척해수욕장, 2022년 및 2021년도는 속초해수욕장이 선정된 바 있다.

* 2023년 우수 해수욕장 3개소에 강원권 해수욕장 미선정

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“해수욕장 시설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평가이니만큼 안전·편의시설, 관리 및 운영, 이용객 만족도 등을 꼼꼼히 따져 공정하게 평가하겠다”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	책임자	과 장	김수진 (033-520-6231)
		담당자	주무관	이수민 (033-520-6247)